

#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수준과 교육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김성재<sup>1</sup>, 황지애<sup>2\*</sup>

<sup>1</sup>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sup>2</sup>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 A Study on The Knowledge, Actual Condition, and Perception of First Aid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Sung-Jae Kim<sup>1</sup>, Ji-Ae Hwang<sup>2\*</sup>

<sup>1</sup>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uncheon Jeil College

<sup>2</sup>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수준과 교육실태 및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S시, I시, J시 소재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고,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카이제곱,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정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지식수준에서는 코피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급처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교육실태 분석 결과, 응급처치교육 관련 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교육자료와 교육시간 또한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인식분석 결과 응급처치교육 확대 필요성과 전문적인 교과과정 운영 필요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자신의 응급처치 실제 수준은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인식에서는 응급처치교육에서 중요한 점과 미래 유아교사로서 배우고 싶은 응급처치교육을 묻는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수준의 향상과 실기 중심의 전문화된 수업이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level of knowledge, the actual status, and perception of first aid amo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238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colleges located in I, J, and S Cit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analysis, mean, standard deviation, and an independent sample t-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first aid knowledge tended to be low overall, and this level depended on whether the subject had completed first aid-related course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ponses to most first-aid questions except for the nosebleed question. Secon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actual status revealed that the proportion of topics related to first aid education was relatively low, and educational materials and training hours were also insufficient. Third, the results of the percep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need to expand and operate a professional curriculum was very high, but the actual current level was evaluated as low.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depending on whether the subjects had completed first aid-related courses, concerning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s on important points and the education they would most like to receive as futur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e need for enhancing the knowledg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regarding first aid and emphasizing practice-oriented specialized courses in teacher education.

**Keywords** : First Aid, Knowledge, Actual Condition, Percepti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본 논문은 2023년도 (사)생활안전보건연합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 Ji-Ae Hwang(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email: jii007@nate.com

Received February 27, 2024

Revised April 3, 2024

Accepted May 3, 2024

Published May 31, 2024

## 1. 서론

Kwak[1]이 제시한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에 따르면, 안전사고 유형 중 추락사고와 이물 삼킴 및 흡인 사고는 영유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2세 영아가 보육교사의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고구마를 먹다 목에 걸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2]. 현재 영유아교사 대상의 응급처치교육이 의무화되어 실행되고 있는 시점에, 사례의 보육교사 또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모든 영유아교사 및 보육교직원은 매년 4시간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한다[3]. 그러나 4시간 이수만으로 다양한 응급처치 상황에 따른 대처가 가능할까? 한국소비자원[4]의 보고에 의하면, 학교 응급처치 의무교육은 실습교육의 미흡, 체계적인 교육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교사들의 응급처치 의무교육 또한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습시간의 부족 등 문제점이 존재하기에[5], 이에 따른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상, 영유아는 환경에 대한 인식능력이 부족하고, 대소근육의 조절력이 미숙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6]. 영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영유아는 예견되지 않은 안전사고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영유아의 생명 보존을 위해 하루일과를 함께하는 영유아교사들의 응급대처능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영유아교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외에서는 현직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관련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영유아교사의 응급처치 교육 지식수준과 수행정도를 살핀 Lee와 Sohn, Kim[7]과 Cho[8]의 연구, 응급상황 처치법 관련 실태를 분석한 Lee[9]와 Lee와 Jo[10]의 연구, 응급처치에 대한 태도, 실천 및 관련 요인을 분석한 Workneh와 Mekonen, Ali[11]와 Ganfure 외[12]의 연구 등이 발표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고찰하면, 영유아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수준은 낮으나[7,8], 응급처치를 바라보는 태도는 긍정적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 응급처치를 시도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경력과 나이가 많고, 응급처치 교육경험이 있을수록, 응급처치 지식이 높고 응급처치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실천 비율이 높음을 보였다[11,12]. 그러나 응급처치교육을 받았지만 실제 응급상황 시에는 대처능력에 어려움을 겪으며, 문제해결을 위

해 실기중심의 교육방식을 요구하고 있었다[9,10]. 결국 영유아교사는 응급처치의 필요성은 인식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는 하지만, 낮은 응급처치 지식과 실기능력의 미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근무경력과 나이가 적고, 응급처치 관련 선(先) 교육경험이 없을수록 응급처치 지식과 대처능력이 부족함을 살필 수 있다. 사태의 결과에는 원인이 있듯이, 영유아교사의 응급처치 관련 문제의 원인도 다양한 각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중 교직 준비기와 선(先) 교육경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유아교사시기에 응급처치교육 이수여부 및 이에 따른 지식수준의 차이, 교육운영 실태, 그리고 응급처치를 바라보는 인식 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대학에서의 경험은 예비교사가 어떤 교사가 되는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13]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응급처치 관련 지식수준과 교육실태 및 인식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직 영유아교사의 자질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고려되는 교직 준비기를 보내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응급처치 지식수준과 실태, 인식 상태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예비유아교사가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응급처치교육을 내실있게 학습하여 관련 실천적 지식수준이 높고, 그 인식의 폭이 깊은 상태에서 졸업 후 현장기관에 근무한다면,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에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관련 지식수준과 교육실태 및 인식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의미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과 교육실태 및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응급처치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수준 및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수준은 어떠한가?
2.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학교수업에서의 응급처치 교육실태는 어떠한가?
3.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교육 인식 및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인식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I시, J시, S시에 위치한 4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272명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가 제작되어 있는 Google Docs 주소를 알려주고 온라인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 중 일부 이중 응답 및 문항응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38명(회수율 87.5%)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1	88	37.0
	2	72	30.3
	3	78	32.7
	≤24	216	90.8
age	25~29	8	3.3
	≥30	14	5.9
	gender	female	238
completion of related Subjects	completion	194	81.6
	non-completion	44	18.4
total		238	100

## 2.2 연구도구

### 2.2.1 응급처치 지식수준

본 설문지는 영유아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14]와 영아 보육프로그램 7권 영양·건강·안전관리[15]를 바탕으로 Hwang[16]의 연구논문의 형식을 참고하여 활용한 Sook[17]의 교사대상 응급처치 지식 설문지를 유아교육과 교수 2인과 5년 경력의 응급구조사 1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코피 2문항, 체온 3문항, 외상 4문항, 사고 7문항, 해충 2문항, 중독 2문항, 질병 3문항 등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급처치 지식수준은 코피와 해충, 중독 0~2점, 질병과 체온 0~3점, 외상 0~4점, 사고 0~7점 등 총 0~23점 점수대로 분포한다.

### 2.2.2 응급처치 교육실태 및 인식 척도

인식 척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위해 사용한 Kang과 Choi[18], Kim과 Park[19], Yoon과 Park, Choi[20]가 연구한 척도 및 보육교사와 예비교사 대상으로 응급처치 인식 비교를 위해 설문지를 구성한 Yuk과 Choi, Yeon[21]의 척도,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Jung[22]의 척도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일

차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실태 및 인식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유아교육과 교수 2인 및 영유아교사 대상 안전교육 강사 2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Table 2. Composition of questions and credibility by the measurement tool of level of knowledge, actual condition, and perception of first aid

	factor	question number	question Type	credibility
level of knowledge	nose blood	1~2	optional scale	.78
	body temperature	3~5		.73
	trauma	6~9		.84
	accident	10~16		.75
	pest	17~18		.81
	addiction	19~20		.82
	disease	21~23		.77
actual condition	completion of related subjects	24	optional scale	.77
	proportion of first aid subjects	25	5point scale	.74
	method of taking a course	26	optional scale	.82
	satisfaction of taking a course	27	5point scale	.72
	educational problem	28	optional scale	.80
	adequacy of educational materials	29	5point scale	.82
	adequacy of educational time	30		.77
	insufficient course content	31	optional scale	.80
	the need to expand education	32	5point scale	.76
	professional curriculum needs	33		.80
perception of first aid	the most important point in first aid education	34	optional scale	.77
	early childhood first aid instructional competency as a future early childhood teacher	35	5point scale	.75
	first aid education that should be a top priority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s	36	optional scale	.81
	first aid education that i would most like to learn as a future early childhood teacher	37		.79
	total number of questions	37		.85

## 2.3 연구절차

### 2.3.1 예비조사

2023년 9월 5일, 본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S시 소재 S전문대학 예비유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소요시간과 설문문항의 적합성 등을 파악하였다. 해당 대상자는 문항이해에 대한 어려움 없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약 10~12분 정도 소요되었다.

### 2.3.2 본 조사

본 조사는 2023년 9월 11일~20일 10일간에 걸쳐 I시, J시, S시에 위치한 4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272명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회수하였다. 응답자 중 성실하지 못한 응답 50부를 제외한 총 238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빈도분석, 카이제곱,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정 등을 사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수준 및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수준 비교

#### 3.1.1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수준

예비유아교사는 총 23개 문항 중 11개 문항에서 60%대 이하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그 문항과 정답률을 살펴보면, 익사사고(64.2%)와 코피(56.7%), 출혈(54.8%), 귀 안 곤충(54.2%), 경련 (53.2%), 열(53.3%), 일사병(52.5%), 염좌(뺨 경우)(50.8%), 찰과상 및 베인 상처(46.6%), 감전사고(44.2%), 물린상처(38.2%)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3. Level of first aid knowledge (N=238)

factor	correct answer frequency(%)
nose blood	if a nosebleed occurs, tilt the child's head back and hold the front of the nose tightly for about 5 to 10 minutes. 206 (85.8)

	if a nosebleed occurs, place a wet towel or ice pack on the child's nose to stop the nosebleed.	136 (56.7)
	when a child has a fever, drink cold barley tea, water, soft drinks, and milk a little more often to prevent dehydration and relieve heat.	127 (53.2)
body temperature	when a child has hypothermia, he or she should keep his or her body warm, and it is effective to use hot packs or electric blankets.	190 (79.2)
	if your child shows symptoms of sunstroke due to prolonged exposure to hot sunlight, you can quickly cool their skin by massaging them with a lukewarm wet towel.	126 (52.5)
	if a child is bleeding and a tourniquet is used, the wound 3cm hand close to the heart. Puts strong pressure on your legs.	131 (54.8)
	when a sprain occurs, immediately apply a compress with a warm wet towel to prevent the sprain from swelling further.	122 (50.8)
trauma	if your child has a fracture, first disinfect the trauma or stop the bleeding, then apply(for hands and feet) immobilize it with a splint and take it to an orthopedic clinic right away.	192 (80.0)
	if there is a scratch or cut, wipe away dirty foreign substances such as soil or dust with soapy water, then wipe the wound with iodine tink, put a bandage on the disinfected gauze, or attach a disposable bandage.	111 (46.6)
	if a child suddenly moves his or her arms and legs due to convulsions, hold the child's arms and legs tightly to prevent him or her from moving.	128 (53.3)
	if a child hits his or her head at home, loses consciousness for a while, then returns and says he or she has a headache, stabilize it for two or three days, and ask a doctor if he or she continues to have a headache.	178 (74.2)
accident	if a child falls into water, lift his or her leg as soon as he or she rescues it so that water or mucus from his or her throat, nose, and airway can flow out by gravity.	154 (64.2)
	if a child's penis is bitten by a zipper, examine the flesh and the zipper, and if you are not sure that it can be easily separated, do not touch it and take the child to the hospital. if your child complains of pain, placing a cold compress or ice wrapped in a clean cloth on the zipper and penis can numb the area and relieve the pain.	172 (71.7)
	in the event of an electric shock accident, immediately turn down the switch or remove the contact with the	106 (44.2)

	electric current by hitting it with a bar (iron/wood bar).	
	if a child swallows a foreign object and becomes stuck in the airway, place the head and upper body lower than the lower body and hit the child's back with the palm of your hand.	186 (77.5)
	if a child suddenly loses consciousness and is transported to the hospital, the remaining people should closely look around the area where the child was, identify any objects or evidence that could be the cause of the coma, and quickly notify the doctor.	224 (93.3)
	when bitten by a person or insect, first wash the wound thoroughly with soapy water to remove blood, saliva, and other dirty foreign substances.	91 (38.2)
pest	if an insect gets into your child's ear, turn that ear up and pour warm salt water inside the ear(saline solution), pour it or shine a flashlight on it.	130 (54.2)
	if a child is poisoned by gas, the child must be quickly transported to a nearby hospital, before arriving at the hospital, lay the child down in a well-ventilated area and tilt the head back to open the airway.	212 (88.3)
addiction	when a child has food poisoning, stabilize the child, prevent him or her from eating, and replenish moisture by feeding small amounts of water mixed with salt and glucose.	190 (79.2)
	if a child has feces mixed with a large amount of red blood, or if blood comes out from the anus, it should be transferred to a hospital where blood can be transfused, and it is recommended to take the child's feces with him.	172 (71.7)
disease	if your child complains of severe abdominal pain, lightly rub his or her stomach or cover it with a warm towel.	196 (81.7)
	if a child has diarrhea, heat the milk to feed it as it is, and if he does not vomit, boil ion drinks, nectar, barley tea, leaf tea, etc. to cool it down and drink it every 30 minutes.	170 (70.8)

### 3.1.2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수준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코피에서 관련 교과목 이수자( $M=1.48$ ,  $SD=.55$ )가 미이수자( $M=1.14$ ,  $SD=.70$ )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t$ 검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520$ ,  $p<.01$ ). 그 외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Table 4. Level of first aid knowledge depending on completion of related subjects (N=238)

factor	completion of related subjects	number of cases	M	SD	t
nose blood	completion	194	1.48	.55	3.520**
	non-completion	44	1.14	.70	
body temperature	completion	194	1.86	.80	.765
	non-completion	44	1.76	.82	
trauma	completion	194	2.38	.85	.257
	non-completion	44	2.32	.80	
accident	completion	194	4.81	1.15	.934
	non-completion	44	4.64	1.08	
pest	completion	194	.94	.81	.218
	non-completion	44	.93	.69	
addiction	completion	194	1.70	.47	.095
	non-completion	44	1.67	.53	
disease	completion	194	2.24	.72	.146
	non-completion	44	2.22	.74	
total	completion	194	15.35	2.36	1.503
	non-completion	44	14.70	1.60	

\*\* $p<.01$

### 3.2 예비유아교사의 학교수업 응급처치 교육실태

응급처치 교육실태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5점 척도로 이루어진 문항 중 응급처치 과목 비중도는 평균 2.43점, 과목수강 만족도는 3.96점, 교육자료 충분성 정도는 3.36점, 교육시간 충분성 정도는 3.12점을 보였다. 선택형 문항인 과목수강 방식에서는 독립된 전공과목 49명(25.3%), 다른 전공과목 포함되어 수강 145명(74.7%)을

Table 5. Actual condition of first aid (N=194)

factor	M	S
proportion of first aid subjects	2.43	.93
satisfaction of taking a course	3.96	.86
adequacy of educational materials	3.36	.77
adequacy of educational time	3.12	.89
factor	N	%
lack of practice materials and equipment	65	33.5
lack of practical skills of instructors	7	3.6
lack of knowledge of instructors	7	3.6
lack of training space	63	32.5
etc	52	26.8
method of taking a course	N	%
taking an independent major course	49	25.3
taking courses including other majors	145	74.7
insufficient course content	N	%
lack of specific experience in first aid	137	70.7
lack of teaching aids for first aid	26	13.4
lack of time for first aid	22	11.3
low class participation due to lack of awareness of first aid	9	4.6

보여, 대부분 다른 전공과목에 응급처치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수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급처치교육의 문제점에서는 실습교재 및 장비부족이 65명(33.5%)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 공간부족이 63명(32.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족한 교육내용을 묻는 문항에서는 응급처치에 대한 구체적 경험부족이 137명(70.7%)으로 가장 많은 답변을 하였으며, 응급처치 교재교구부족 26명(13.4%)과 응급처치 시간부족이 22명(1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 3.3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교육 인식 및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인식

#### 3.3.1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교육 인식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5점 척도로 이루어진 문항 중 교육 확대 필요성은 평균 4.53점, 전문적인 교과과정 필요성은 4.55점을 보였으며, 미래 유아교사로서의 유아응급처치 지도 역량 문항에서는 평균 3.65점을 나타내었다. 선택형 문항인 응급처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에서는 현장 경험을 통한 응급처치 관련 기능 기술 습득이 156명(65.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현장 영유아기관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응급처치교육을 묻는 문항에서는 응급심폐소생술이 121명(50.8%)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미래 유아교사로서 가장 배우고 싶은 응급처치교육을 묻는 문항에서는 외상 관련 교육(골절, 벤 것, 찰과상 등)이 81명(34.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Table 6. Perception of first aid (N=238)

factor	M	S
the need to expand education	4.53	.65
professional curriculum needs	4.55	.65
early childhood first aid instructional competency as a future early childhood teacher	3.65	.92
factor	N	%
the most important point in first aid education	acquisition of first aid knowledge	46 19.3
	first aid skill acquisition through field experience	156 65.6
	first aid attitude acquisition	36 15.1
first aid education that should be a top priority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s	emergency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121 50.8
	trauma-related education (fractures, sprains, abrasions, etc.)	67 28.2
	disease control	26 10.9
	hypothermia	4 1.7
	convulsions	8 3.4

first aid education that i would most like to learn as a future early childhood teacher	bleeding	8	3.4
	drowning accident	0	0.0
	addiction	0	0.0
	bug bite	4	1.7
	electric shock	0	0.0
	emergency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51	21.4
	trauma-related education (fractures, sprains, abrasions, etc.)	81	34.0
	disease control	24	10.1
	hypothermia	10	4.2
	convulsions	22	9.2
	bleeding	16	7.7
	drowning accident	12	6.7
	addiction	6	2.5
	bug bite	8	3.4
electric shock	4	1.7	

#### 3.3.2 예비유아교사의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인식

예비유아교사의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인식분석 결과, 응급처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묻는 문항에서 관련 교과목 이수자와 미이수자 모두 현장 경험을 통한 응급처치 관련 기능 기술 습득에 각 136명(70.2%)과 24명(54.5%)이 답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관련 교과목 이수자는 응급처치 관련 지식습득과 태도 습득에 29명(14.9%)이 답해 같은 수치를 보인 반면, 미이수자는 응급처치 관련 지식 습득 14명(31.8%), 태도 습득 6명(13.6%)이 답해 차이를 나타내었다.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6.407(df=2)$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5$ ).

미래 유아교사로서 가장 배우고 싶은 응급처치교육을 묻는 문항에서는 관련 교과목 이수자는 외상 관련 교육(골절, 벤 것, 찰과상 등)에 70명(36.1%)이 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미이수자는 응급심폐소생술에 12명(27.3%)이 가장 많이 답해, 관련 교과목 이수자와 다른 분포를 보였다.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미래 유아교사로서 가장 배우고 싶은 응급처치교육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23.506(df=9)$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1$ ).

Table 7. Perception of first aid depending on completion of related subjects (N=238)

factor	completion of related subjects	number of cases	M	SD	t	
the need to expand education	completion	194	4.55	.63	.546	
	non-completion	44	4.50	.79		
professional curriculum needs	completion	194	4.62	.63	1.893	
	non-completion	44	4.41	.84		
early childhood first aid competency as a future early childhood teacher	completion	194	3.65	.90	.584	
	non-completion	44	3.59	.84		
factor		N	%	$\chi^2(df)$		
the most important point in first aid education	acquisition of first aid knowledge	completion	29	14.9		
	non-completion	14	31.8			
first aid education that should be a top priority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s	first aid skill acquisition through field experience	completion	194	136	70.2	6.407* (2)
	non-completion	44	24	54.5		
first aid education that i would most like to learn as a future early childhood teacher	first aid attitude acquisition	completion	29	14.9		
	non-completion	6	6	13.6		
emergency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ompletion	101	52.1			
	non-completion	20	45.5			
trauma-related education (fractures, sprains, abrasions, etc.)	completion	52	26.8			
	non-completion	16	36.4			
disease control	completion	22	11.3			
	non-completion	4	9.1			
hypothermia	completion	4	2.1	3.953 (6)		
	non-completion	194	0		0.0	
convulsions	completion	6	3.1			
	non-completion	2	2		4.5	
bleeding	completion	5	2.6			
	non-completion	2	2		4.5	
drowning accident	completion					
	non-completion					
addiction	completion					
	non-completion					
bug bite	completion	4	2.1			
	non-completion	0	0		0.0	
electric shock	completion					
	non-completion					
emergency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ompletion	44	22.7	23.506** (9)		
	non-completion	12	12		27.3	
trauma-related education (fractures, sprains, abrasions, etc.)	completion	194	70	36.1		
	non-completion	44	10	22.7		

disease control	completion	22	11.3
	non-completion	2	4.5
hypothermia	completion	10	5.2
	non-completion	0	0.0
convulsions	completion	12	6.2
	non-completion	10	22.7
bleeding	completion	10	5.2
	non-completion	6	13.6
drowning accident	completion	10	5.2
	non-completion	2	4.5
addiction	completion	6	3.1
	non-completion	0	0.0
bug bite	completion	6	3.1
	non-completion	2	4.5
electric shock	completion	4	2.1
	non-completion	0	0.0

\* $p < .05$ , \*\* $p < .01$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수준과 교육 실태 및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응급처치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찰과상, 베인 상처 대처법, 감전사고 대처법, 물린상처 대처법 등은 매우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어 이에 대한 교육적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을 파악한 석희숙[17]의 연구결과와 일부 맥락을 같이 한다. 향후 예비유아교사, 유아교사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그 지식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해당직무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지닌 전문적이고 유능한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사회적 책무임을[23] 고려할 때,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유아교사의 핵심역량 증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영유아교사의 핵심역량 중 안전지도 및 응급상황 대처 역량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영유아는 왕성한 호기심에 비해 자기신체조절 능력이 부족한 발달시기상의 특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교사의 안전에 대한 민감성과 사고 후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역량 또한 유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핵심역량이다. 이에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직 준비기의 중요성

을 고려하여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제도 마련에 관심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관련 교과목 이수자가 미이수자에 비해 모든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나, 코피문항을 제외한 체온, 외상, 사고, 해충, 중독, 질병, 그리고 전체 총 점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Ilha 등[24]이 응급처치교육 활동을 유아교사들에게 적용한 결과, 교육활동 참여 전에 비해 사후에서 유아교사들의 응급처치 관련 지식이 증가하였음을 밝힌 연구결과와 맥락을 달리한다. 이에, 대부분의 응급처치 문항에서 관련 교과목 이수자와 미이수자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지역, 다른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시도되어 본 연구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관련 교과목 이수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등 질적연구를 실시하여 그 원인에 대한 깊고 넓은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학교수업에서의 응급처치 교육실태를 살펴본 결과, 응급처치교육 관련 과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교육자료와 교육시간 또한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과목수강 방식에서는 다른 전공과목에 포함되어 관련 내용을 수강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실습교재 및 장비·공간부족이, 부족했던 교육 내용으로는 응급처치 관련 구체적 경험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 원인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다른 전공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과 인식 속여, 교육시간과 공간의 부족으로 응급처치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익힐 경험이 부족하였기에 응급처치 지식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교원양성기관에서는 다양한 응급처치와 관련한 지식과 기술을 쌓을 수 있는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등 교육적 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응급처치교육 확대 필요성과 전문적인 교과과정 운영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으나, 현재 자신의 응급처치 실제 수준은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보다 응급처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응급처치 지식수준은 낮음을 검증한 Kwon과

Jung[25]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현 응급처치 지식과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이 응급처치와 관련한 보다 전문적인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응급처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현장 경험을 통한 응급처치 관련 기능 기술 습득이, 현장 영유아기관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응급처치교육으로는 심폐소생술이, 미래 유아교사로서 가장 배우고 싶은 응급처치교육으로는 외상 관련 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영유아교육(보육)현장과 연계한 교육, 혹은 수업에서의 간접경험을 통해 응급처치 기술을 몸에 익히는 실기중심의 교수법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응급처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과 미래 유아교사로서 가장 배우고 싶은 응급처치교육을 묻는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응급처치 이수자는 응급처치교육에서 중요한 점으로 응급처치 관련 기능 기술 습득이라고 답해 관련 교과목에서 응급처치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학습한 결과, 응급처치 관련 기능과 기술을 습득해 몸에 완전히 익혀 놓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미이수자는 응급처치 관련 지식습득도 높은 응답율을 보여 미이수한 시점에서 응급처치 관련 지식 습득도 어느 정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릴 수 있다. 미래 유아교사로서 가장 배우고 싶은 응급처치교육을 묻는 문항에서는 이수자는 외상 관련 교육에, 미이수자는 응급심폐소생술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수자가 부분적으로 학습한 응급처치교육에서 외상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충분히 그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외상 처치법에 해당하는 지혈대 및 부목 사용법, 상처 드레싱 등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에서는 보건의료 교수자와 팀티칭 등의 협력수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뒤따라길 제언한다. 개발 시, 유아교육 전공자와 보건의료 전공자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응급처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음을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일부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관련 교과목 이수자와 미이수자간 사례 수 차이가 있어, 향후 연구에서



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기하기 위해, 사례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수준의 향상과 실기 중심의 전문화된 수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References

- [1] H. A. Kwak, 22,000 Cases of Child Safety Accidents, an Increase Since Last Year, data SOM[cited 2023 May 31], Available From: <https://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15> (accessed Nov. 3, 2023)
- [2] S. R. Youn, A 2-year-old Baby Choked While Eating a Sweet Potato, What are the Emergency Treatments for Infants Depending on the Situation?, Healthy Life[cited 2022 July 18], Available From: <https://mobile.hidoc.co.kr/healthstory/news/C0000717598> (accessed Nov. 7, 2023)
- [3]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cited 2024 Feb 17],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 (accessed Nov. 10, 2023)
- [4] Korea Consumer Agency, A Survey on First Aid Education, Korea Consumer Agency, Korea, pp.1-25. 2021.
- [5] J. Y. Hwang, E. S. Oh, K. J. Cho, "A Study on the Self-confidence in Performance and Education Demand of First Aid in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 pp.234-243, Jan,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234>
- [6] M. S. Kim, M. H. Park, H. S. Yi, "The Kindergarten Teachers' Actual Condition of First-Aid Educat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3, No.1, pp.91-114, Feb, 2006.
- [7] J. Y. Lee, B. Y. Sohn, H. I. Kim, "Caregiver's Knowledge and Needs for Infant and Children First-Aid",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Vol.3, No.1, pp.45-63, May, 2010.
- [8] M. K. Cho, *Analysi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Knowledge and Implementation Level in Emergency Response*,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orea, pp.1-4. 2017.
- [9] C. H. Lee, "A Study of the Actual Condition of Safety Recognition in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21, pp.27-43, Nov, 2018.
- [10] S. M. Lee, M. S. Jo, "Early Child Care Teachers' Treatment Method on Emergency Situation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7, No.4, pp.55-80 Nov, 2010.
- [11] B. S. Workneh, E. G. Mekonen, M. S. Ali, "Determinants of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towards First Aid among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Gondar City, Northwest Ethiopia", *BMC emergency medicine*, Vol.21, No.1, pp.1-11, Jun, 2021.  
DOI: <https://doi.org/10.1186/s12873-021-00468-6>
- [12] G. Ganfure, G. Ameya, A. Tamirat, B. Lencha, D. Bikila, "First Aid Knowledge, Attitude, Practice,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Kindergarten Teachers of Lideta Sub-city Addis Ababa, Ethiopia", *PLoS one*, Vol.13, No.3, pp.1-15, Mar, 2018.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94263>
- [13] P. K. Murphy, L. A. M. Delli, M. N. Edwards, "The Good Teacher and Good Teaching: Comparing Beliefs of Second-Grade Students, Preservice Teachers, and Inservice Teachers",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Vol.72, No.2, pp.69-92, Apr, 2004.  
DOI: <https://doi.org/10.3200/JEXE.72.2.69-92>
- [14] National Council of Nursery Teachers' Education Center, Safety Management and First Aid for Young Child, p.294, Paju: Yangseowon, 2005, pp.41-50.
- [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fe Child Care Program, p.163, Gwache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97, pp.46-58.
- [16] M. Y. Hwang, *A Study on Safety Accidents at Kindergarten and Demand for First Aid Education to Kindergarten Teachers*, Master's thesis, Chinju National University, Chinju, Korea, pp.33-34, 2002.
- [17] S. H. Sook, *A Study of the Actual Condition of the Emergency Management of Child-Care Institutions and of the First-Aid Knowledge and Education of Child-Care Teachers*, Master's thesis, Seongg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pp.27-28, 2007.
- [18] K. S. Kang, P. A. Choi, "A Study of the Need for Education and First Aid Recognition Level of Security Major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9, No.2, pp.220-230, Sep, 2013.
- [19] B. K. Kim, I. S. Park,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Knowledge and Need for First Aid",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7, No.3, pp.103-111, Sep, 2013.  
DOI: <https://doi.org/10.21184/ikeia.2013.09.7.3.103>
- [20] J. D. Yoon, Y. J. Park, H. J. Choi, "A Comparative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Exercise Injuries and First Aid of 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Japan", *The Korea Journal of Sport*, Vol.19, No.4, pp.485-494, Apr, 2021.  
DOI: <https://doi.org/10.46669/kss.2021.19.4.042>
- [21] G. L. Yuk, K. Choi, H. M. Yeon, "Comparison between Perception of Early Child Care Teachers and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regarding the First Ai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3, pp.242-248, Mar,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3.242>

- [22] H. R. Jung,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s for First Aid of Primary,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Teacher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p.10-12, 2009.
- [23] Y. S. Park, H. R. Lee, "The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Core Competencies by Grade Level",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1, No.1, pp.343-366, Feb, 2016.
- [24] A. G. Ilha, S. B. Cogo, T. K. Ramos, R. Andolhe, M. R. Badke, G. Colussi, "Educational Actions on First Ai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A Quasi-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School of Nursing · University of SÃO PAULO*, Vol.55, No.0, pp.1-7, Jul, 2021.
- [25] H. R. Kwon, J. Y. Jung, "Actual Survey of College Students' Knowledge of First Aid",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7, No.1, pp.81-94, Dec, 2003.

김 성 재(Sung-Jae Kim)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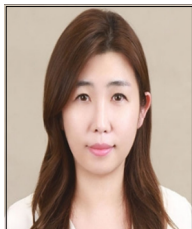


- 2013년 8월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교육학석사)
- 2007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황 지 애(Ji-Ae Hwang)

[정회원]



- 2008년 8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3년 8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박사)
- 2021년 11월 ~ 현재 :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2015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